

비리성 책 광고의 근절

李璟薰 편집위원 · 보성사 대표

책광고라면 일차적으로 책이 갖는 보편적 이
기나 가치를 손상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서적계 일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까지 스스로 책의 가치를 서슴지
않고 깎아내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것이 비
록 일부 몰지각한 서적계의 작태라 할지라도 그
것이 도서문화의 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광고의 대표적인
예로서 두가지 형태를 들 수 있다. 그 하나가 "50
%이하의 할인판매"요, 다른 하나가 소위 "끼워
팔기"이다.

특히 작금년에 신학기를 앞두고 도하 각 일간
지면에 5단통의 크기로 나붙은 "198년도 신학
기 사전류 할인 분할 판매 공고"따위가 바로 그
것이다. "△출판중앙회"라는 권위적인 이름의

업체명이지만 주소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단
지 우체국 사서함과 전화번호만이 적혀 있으며,
수십종의 각종 전집물을 한데 묶어 놓고 책광고
로서의 필요조건인 저·역자명, 출판사명, 판형,
페이지수 등 책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제요소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가란과 판매가의
두 난을 나란히 하여,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값이
싸다는 인상을 강력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광고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책의
질이 좋고 나쁨을 가릴것 없이 이만한 분량의 책
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독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기회에 이런 광고를 게재
하는 신문에 이해를 구하고 싶다. 제도성과 문
화성을 표방하고 있는 각 일간 신문이 앞서와서
같은 책광고를 분별없이 일년 내내 돌아가면서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광고 기준의 무원칙한
운영과 아울러, 부실한 문화상품 광고가 나감으
로써 이런 책들이 독자에게 팔려나가 읽히고 있
다는 증거이므로, 이를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비리
성 광고의 예는 한국출판의 누적된 폐단의 총체
적 표출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로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모름지기 한권의 책이 독자의 손에 들어가서
정착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책은 얼핏 보면 출판
사나 판매처인 서점이 임자인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책의 필자, 삽화가, 장정가, 사진
작가 등과 책을 기획하고 편집한 출판사, 인쇄소,
제본소, 그리고 책을 구독하는 독자까지 합하면,
그 책을 생산해낸 사회공동체가 책의 주인이라
고 할 수 있다. 기업운영상의 어떤 곡절이 있었
다 하더라도, 이런식의 판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건전해야 할 출판산업을 밑으로부터 흔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오는 새해에는 이와
같은 비리성 책광고가 근절되었으면 좋겠다.

출판저널

통권 제 33호/1989년 1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鼎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尙秀
편집주간 — 李勝羽
편집차장 — 康鐵柱
기자 — 吳愛里 南眞祐 金芝媛
디자인 — 尹貞子

포토디렉트 — 朱明德
사진 — 全惠敏

업무·광고 — 梁承杓 崔允源
洪先基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공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식

출판저널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내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
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瑛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沈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錫慶 安秉永
安輝濤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腹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元植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
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
면 입금된 날째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
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일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
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
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
다. 신간중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
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
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
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
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료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
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1월20일까
지 「출판저널」 독자퀴즈 담당자 앞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5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
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
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35호(2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동아출판
사에서 펴낸 「동아프라임국어사전」
(정가 85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 1

우리나라 최초의 近代 창작시집
은 「해파리의 노래」이다. 이 시집
은 1923년 6월30일 조선도서주식
회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시집의
저자는 누구인가?

- 1. 한용운
- 2. 김억
- 3. 최남선

문제 2

송나라 때 인종의 신하였던 錢惟
演이라는 대신은 박학한 독서가로
서도 유명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그의 독서일화가 전해지
고 있다. 즉 “錢惟演대신은 앓을
때는 經書를 읽고, 누울 때는 소설
을 읽고 廁(축)에 가면 小詞를 읽었
다”는 것이다. 여기서 廁(축)이란
어느 곳을 이르는 말인가?

문제 3

16세기 초엽 영국의 인문주의자
였던 토머스 모어卿(1478~1535)
은 「유토피아」(Utopia)의 작가로
유명하다. 이것을 흔히 ‘이상향’으
로 풀이하고 있는데, 유토피아란
모어卿이 희랍어를 가지고 만든 造
語이다. 과연 유토피아란 어떤 뜻
을 가진 말인가?

- 1. 아무데도 없는 곳
- 2. 꿈에서 볼 수 없는 곳
- 3. 가장 아름다운 곳

문제 4

다음과 같이 영문소설로서 가장
긴 ‘제목’을 가진 이 소설의 작가는
누구인가?
“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York, mariner, who Lived Eigh-
t- and-twenty years all alone in
an uninhabited Island on the Coast
of America, near the mouth of the
great River Oroonoke, having
been cast on shore by shipwreck,
wherein all the men perished but
himself. With an Account how
he was at last strangely delivered
by Pirates. Written by Himself”
1. 어네스트 헤밍웨이

- 2. 서머셋 몸
- 3. 다니엘 디포우

문제 5

우리나라도 국제저작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저작자 또는 판
권소유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책
을 가리켜 이른바 海賊版 또는 僞
版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할까?

- 1. nonofficial edition
- 2. unperceived edition
- 3. pirated edition

제31호 독서퍼즐 정답

「독서퍼즐」에 응모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1호(11
월20일자) 퍼즐에 응답해 온 엽서
는 87통, 이중 정답은 71통이었습
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
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
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
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
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①梅泉野錄

한말의 야사인 이책은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사료총서 제1권으

로 간행되어 한국최근세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2. ③나일강

3. ①도난방지

당시의 책은 양피지로 만든 필사
본인 동시에 금은보석으로 장식까
지 할 정도로 책이 희귀하고 귀중
했기 때문에 도난에 대비하기 위해
책에다 쇠사슬을 꿰어 독서대에 얹
어 놓았다.

4. ②런던과 파리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는 프
랑스혁명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며,
디킨즈에게 책을 빌려 주었던 칼라
일은 「프랑스혁명」의 저자로도 유
명한 영국의 역사가이자 사상가이다.
—출제·홍윤기

당첨자

강연자(서울 구로구 시흥5동 919-
50 7/2)

이경애(경북 경산군 중방동 836-
9 경도주택 7호)

이경훈(서울 도봉구 8-394 미야
타운 10동 102호)

노영숙(충북 청주시 산남동4-11
충청북도교육연구원)

이주형(충남 대전우체국 사서함
35호 기술정보실)